

陰陽과 五行의 關係 -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朴贊國

I. 序論

우리가 陰陽과 五行을 함께 말하고 있으면서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는 陰陽과 五行을 別個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또한 五行을 서양의 原子論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陰陽과 五行은 別個의 것일 수 없고 하나의 現實을 說明하는데 동원된 용어일 뿐이다. 즉 現實 세계를 客觀的으로 觀察할 때는 相互 對立 하면서 調和를 이루는 陰陽으로 보이지만 같은 世界라 할지라도 觀察者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관찰을 하거나, 또는 客觀의 世界가 단순한 客觀의 世界가 아니고 어떤 意志를 가지고 있는 世界로 인정이 되면 그 단순한 客觀的인 陰陽의 世界는 五行의 世界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똑같은 現實이라 하더라도 陰陽的인 관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五行的인 관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陰陽 五行은 時空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시 時空으로 나누어 보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이며 다시 이를 五運六氣, 經絡, 傷寒論 등에서 쓰이는 예를 생각하여 보면 좀더 그 이해가 쉬울 것이다. 여기에서는, 時空의 관계를 생각하여 보고, 나아가 인체의 臟腑와 經絡을 가지고 인체에서의 陰陽五行을 분석해 보고 河圖洛書와 五運六氣에서의 陰陽五行을 살펴보고 끝으로 辨證에서의 陰陽五行의 응용을 연구해 보았다.

II. 時間 및 空間과 陰陽五行

時間과 空間이라는 말은 곧 用과 體이라는 말로 바뀔 수 있는 말이다. 즉, 陰陽과 五行에서 그 本體的인 陰陽五行이 있고 作用的인 陰陽五行이 있는데 本體的인 陰陽五行은 空間에 배열될 수 있는 것이고 作用的인 陰陽五行은 時間에 배열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陰陽을 가지고 생각하여 보면 天은 陽이고 地는 陰이며 男은 陽이고 女는 陰이라는 것은 體에서, 즉 空間에서 陰陽을 따진 것이다. 물론 이에서 연역하여 上下, 左右, 剛柔, 高下, 遲速, 水火, 日月, 升降 등 수많은 예를 들 수 있다.¹⁾ 그러면, 用的인 면에서의 陰陽이란 무엇인가? 陰陽은 원래 乾坤 男女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하늘처럼 베풀어주는 것은 陽이요, 땅처럼 길러주는 것은 陰이며, 男子처럼 일을 벌리는 것은 陽이요, 女子처럼 마무리하는 것은 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역시 時間의 흐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²⁾

1) 《素問·陰陽應象大論》: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 등은 陰陽의 體를 설명하고 있는 말들이다.

2) 陰陽互根, 陽生陰長, 陽殺陰藏,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陰之使也 등은 바로 用的인 陰陽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體的인 陰陽이라 하여 時間이 없어도 그 陰陽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時間의 흐름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用的인 面에서의 陰陽의 作用이란 時間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작용을 발휘할 수 없다. 물론 空間이 없이는 그 作用을 발휘할 수 없지만 體에서처럼 절대적일 수 없다.

여기에서 體와 用을 나누고 空間과 時間을 나누는 것은 단지 우리의 認識을 돕기 위한 것이다. 즉 陰陽을 말함에 있어 어떤 경우는 그 體를 말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用만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體가 없이 用이 있을 수 없고 用이 없이 體를 認識할 수 없으므로 體와 用은 분리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空間과 時間을 分離하여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現實에서 서로는 相對가 없이는 그 存在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體用과 時空을 이용하여 陰陽을 說明하면 실제상에 있어서 이러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여야 한다.

즉 天地를 인식할 때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天은 주고 땅은 받는다는 行爲를 인식할 때는 時間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陰陽은 애초에 단순한 空間의인 인식으로 그 存在를 인식하였지만 점차 시간을 가미하여 行爲에 대한 인식으로 넓어져 갔음을 알 수 있다.

五行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애초에 五材니, 六材니 하는 것은 地球上의 많은 물질의 기본이 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므로 아마 空間의으로 인식하고 五行의 體를 인식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五行을 어떤 유기체 즉 國家나 人體 등에 적용하면서 그 상호 작용을 인식함으로써 用的 개념이 더욱 넓어졌던 것이다.³⁾

3)相生 및 相克作用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 외에 相侮, 相畏, 相須 등도 생각할 수 있다.

즉 陰陽은 事物의 體的인 觀察과 空間的인식에서 보다 쉽게 파악될 수 있으며 五行은 事物의 用處와 時間的인 變化에서 쉽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III. 臟腑와 經絡.

陰陽은 客觀의 世界요 五行은 客觀의 世界에 主觀을 가진 自我가 투입된 世界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客觀의 世界니 主觀의 世界니 하여 主體인 現實 그 自我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現實을 사람이 인식함에 있어서 客觀的인식과 主觀的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어떤 外部의 現實을 認識할 때의 과정을 말한 것이고 外部가 아니라 한 個體의 내부를 인식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역시 外部의 現實을 인식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어떤 個體를 단순한 客觀的인 관찰을 통하여 보면 陰陽의 變化가 관찰될 수 있고 主觀的인 관찰을 동원하면 五行의 變化가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체의 五臟六腑와 經絡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五行의 變化는 五臟이 주관하고 陰陽의 變化도 五臟이 주관하지만 六腑와 經絡을 통하여야만이 外部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臟腑와 經絡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는 곧 陰陽과 五行의 관계를 밝히는 것과 같은 일에 속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五行의 變化를 五臟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여 五行은 五臟에 속하는 것이고 陰陽의 變化가 經絡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여 陰陽은 經絡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인체 그 自我가 스스로 통제와 조절 능력이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말할 때나 또는 그 통제와 조절 능력을 가진 부분을 말한 때 우리는 五行의 主觀的인 관찰 방법을 그 곳에 移入하

여 五臟이 五行의 變化를 주관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인체의 스스로 통제나 조절 능력을 무시하고 단순히 드러난 變化만을 말할 때 우리는 經絡과 陰陽을 통하여 客觀的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우리에게 인식된 내용을 말한 것이요 실질적인 五臟과 經絡 間의 관계는 아니다. 즉 人體라는 個體에서 그 主觀이 五臟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그 五臟은 하나의 주체로 어떤 意志를 가지고 外部의 자극에 적응하여 變化하고 있을 것이다. 즉 五臟은 그 안에 五神을 藏하고 外部 즉 天과 地에서 六氣와 五味를 받아들여 五行 運動을 하면 五臟에서는 五運이 생기고 六腑에서는 六氣가 생겨 經絡에서 三陰三陽의 變化가 발현된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五臟에서 五行 運動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완전히 主觀的 意志만으로 그 運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六腑나 經絡에서의 運動에 비하여 더 意志적이고 主觀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經絡에서의 運動도 단순한 客觀的 理致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五臟에서의 運動에 비하여 좀더 客觀的이라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五臟에 陰陽의 變化가 없을 수 없고 經絡에 五行의 變化가 없을 수 없지만, 그 중심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져서 五臟을 五行에 배속하고 經絡을 陰陽에 배속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좀더 客觀的 變化는 經絡을 통하여 드러나고 좀더 主觀的인 運動은 五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臟과 經絡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陰陽 五行의 의존적 관계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IV. 河圖 洛書와 陰陽五行.

우리는 흔히 河圖를 先天圖라 하고 洛書를 後天圖라 하여 이 둘이 宇宙의 生成 變

化를 다 말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陰陽으로 말하기도 하고 五行으로 말하기도 하듯이 이 河圖와 洛書도 하나의 우주의 生成變化를 말하고 있는데 단지 표현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을 뿐이다.⁴⁾ 즉 洛書가 萬物이 分化하고 발달하는 것을 표현했다면 河圖는 통일되어 수렴하려는 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물에 비유한다면 河圖는 씨의 모양과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洛書는 잎이 피고 꽃이 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씨와 잎줄기가 피어 있는 식물을 분리시키지 말고 함께 붙여서 생각한다면 식물 속에는 씨도 있고 동시에 잎과 줄기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萬物은 分化 發達을 함과 동시에 통합하여 수렴하려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함께 말하면 인식이 어려우므로 이렇게 분리하여 말하고 있다. 또한 萬物은 그 안에서 意志를 간직하고 그 자신의 運動을 지휘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이곳은 좀더 安靜되고 調和롭게 보인다. 반면에 같은 個體內에 있는 것들이라도 지휘와 감독을 받아 활발하게 運動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變化가 심하고 활발하게 보이고 있다. 즉 河圖는 個體내에서 지휘와 감독을 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洛書는 그 지휘와 감독을 받아 變化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個體에 있다할지라도 좀더 자발적이고 意志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동적이고 숙명적인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물론 個體內의 特性에 따른 차이가 있어 生物은 無生物에 비하여 더욱 意志에 따라 그 運動을 전개하고 生物 중에서도 動物은 植物보다 더 意志에 의하여 運動하

4) 河圖와 洛書: 이 논문의 맨 뒤에 있음.

며, 動物 중에서도 人間이 가장 意志가 굳세다. 즉 이 意志가 굳세다는 것은 그 個體內에 先天之氣가 강하다는 것이요 바꾸어 말하면 精氣가 津液에 비하여 힘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先天之氣와 精氣에는 모두 神이 充滿되어 있고 이 神의 작용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이다. 물론 神의 작용도 陰陽의 變化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를 조화시키는 때에는 五行의 運動을 하고 있으며, 五行은 中央에 土의 精神作用이 있어 그 存在가 성립하므로 先天之氣와 精氣가 강한 것은 五行의 氣運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植物은 자신의 精神과 精氣가 약하므로 자신의 五行 運動보다는 外部의 陰陽 變化에 적응하여 陰陽運動에 더욱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神機之物이라 부르고 植物을 氣立之物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客觀的 事實을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萬物의 變化에서 그 事物의 속에 無形으로 存在하고 있는 精神 즉, 五行氣運, 先天之氣, 意志라고 표현할 수 있는 因素는 무시하고 단순히 결과로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과학의 法則은 精神이 약하여 五行運動이 미약한 無生物이나 좀더 약한 植物에서는 어느 정도 現實性이 있겠지만, 精神이 훨씬 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고 있다.

또한 사람의 생명활동이란 그 內部的 五臟六腑에 五神과 精氣가 있고 經絡·肌肉에 氣血과 津液이 있어 陰陽運動과 五行運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陰陽運動이란 이미 결정된 행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五行의 運動에 영향을 미치며 五行運動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五神의 지휘로 이루어지지만 끊임없이 外部 즉 다른 個體의 五神이나 天地의 神과 끊임없는 交流와 相議를 거친 후에 五神의 志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결정된 五神의 형태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는 후천에서 많은 變化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즉 인체에 五行이 있고 陰陽이 있는데 陰陽으로만 인체의 生成變化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五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즉, 相互 협조하여 그 運動을 완성하고 있으며, 더 크게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분리될 수 없고 더 커다란 자연이나 사회 우주의 陰陽五行의 運動속에서 그에 순응하여 따라가기도 하고 또한 個體 스스로 독립하여 運動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五行運動을 主體的 主觀的 運動이라 한다면 고등동물일수록 五行運動이 強하고 하등동물이나 植物로 내려갈수록 陰陽變化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萬物 全體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사람이 五行運動의 主體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외의 萬物이 陰陽의 變化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V. 辨證과 陰陽五行.

萬物을 陰陽五行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人體의 病이라 하여 그 例外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이 陰陽과 五行을 辨證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陰陽과 五行은 그대로 辨證에 利用하기에는 너무 막연하므로 주로 五臟六腑와 經絡에 의지하여 사용하였다.

《黃帝內經》에서도 臟腑와 經絡이 모두 辨證에 利用되고 있는데, 七情內傷으로 온 병이라면 먼저 臟腑로 辨證하고, 六氣外感으로 온 병이라면 經絡으로 辨證하여 治療를 論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外感으로 온 병이라 하더라도 병이 낫지 않으면 內로 腑와 臟으로 들어가 病을 發生시킬 수 있음을 말하고 또한 七情內傷이나 四時의 逆으로 속으로 精氣의 損傷이 오면 그 後에 六氣外感이 올 수 있음을 말하여 內外를 分離하여

말하면서도 실제 病理의 說明이나 治療論함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연계를 매우 重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로 仲景 《傷寒論》에서 六經으로 辨證하여 經絡만을 취하고 臟腑를 거론치 아니하였고, 송 이후에 발달한 八綱辨證도 陰陽을 大綱領으로 삼고 五行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溫病學者인 葉桂도 그의 溫熱論에서 衛氣營血辨證을 말하면서도 臟腑나 五行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李濟馬 선생의 四象醫學도 陰陽을 강령으로 體質을 나누고 있다. 물론 이러한 辨證法이 비록 臟腑와 五行을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은연중에 이를 감추고 있으며, 또한 각기 훌륭한 辨證法들이다. 문제는 우리 후학들이 자칫 陰陽만을 염두에 두고 五行을 생각치 않거나 또는 생각하더라도 그 연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 같다는 것이다. 물론 經絡과 陰陽, 表裏, 寒熱, 虛實, 營衛 등으로 病理의 說明이 充分하지만 보다 깊고 精確한 理解를 위하여는 五臟과 五行의 導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陰陽이나 五行 中 하나만을 택하여 辨證을 하면 간편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事物에 陰陽의 속성과 더불어 五行의 속성이 같이 있으며, 더욱이 사람은 精氣가 강하여 五臟六腑가 內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精氣도 다른 어떤 事物보다 강하므로 반드시 五臟六腑의 機能의 盛衰가 같이 辨證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본다면 金元四大家가 《傷寒論》의 經絡 陰陽의 辨證에 臟腑와 五行을 포함시킬 수 있는 臟腑虛實病理를 發展시킨 것이 우리 醫學上에 매우 커다란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즉 이 四大家의 火熱論은 滋陰降火說로 發展되었으며 陰火論은 補土說로 發展되었는데 兩者가 火를 말했는데 이 火는 六氣의 火 즉 外感의 火가 아니라 모두 體內에서 熱火로 변한 것이거나 體內에서 생긴 火를 말한 것이며, 이의 治療에

있어서도 寒한 藥으로 逆하여 治療하기보다는 甘溫한 藥으로 順하여 治療하려 하였다. 즉 이는 體內의 精氣 즉 五臟의 精氣를 기르는 것으로 病도 治療하고 나아가 모든 病을 미리 막으려 한 것이다.

이러한 學說이 종국에 가서 人體의 病을 治療하는데 있어서 邪氣를 驅逐하기 보다는 元氣만 大補하면 모든 病이 나올 수 있다는 폐단을 일으킨 면도 있으나, 여기에서 발달한 命門相火論이나 三焦學說은 臟腑 및 人體의 生理를 충분히 說明할 수 있었으며, 함부로 病邪를 공격하는 폐단을 없애주기도 하였다.

모든 事物의 관찰이 內外를 모두 해야 하듯이 疾病에 있어서도 內部的 五行의 상태와 外部에 드러난 陰陽의 狀態를 모두 觀察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陰陽에만 치우치면 드러난 現狀에만 집착하여 차가운 藥이나 더운 藥을 너무 과도히 쓸 염려가 없지 않으며, 반대로 五行으로만 본다면, 精氣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오로지 溫補시키는 藥만을 과도히 쓸 염려가 없지 않다.

VI. 五運六氣와 陰陽五行.

모든 萬物은 모두 陰陽五行에 따라 變化하고 있다. 그러나, 五行은 內部 人體의 變化에 그치고 그 영향이 밖의 다른 事物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른 事物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자체가 氣로 변하여 陰陽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六氣이다. 그러면 五運이란 무엇인가? 五運이란 모든 萬物을 각기 하나의 個體로 보았을 때 萬物의 五行 運動을 지칭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五運六氣는 지구상에서의 氣候變化 즉 陰陽氣의 多少와 五運上의 相合에서 나타나는 變化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宇宙의 五行運動 안에서 지구의 五行運動이 주가 될 수 밖에 없다. 즉 지구는 宇宙의 일부이

므로 宇宙가 하고 있는 五行運動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지구가 宇宙의 일부이기는 하나 또한 그 宇宙 안에서 독립된 個體로 존재하므로 우주의 六氣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大韓民國의 한 국민으로 살고 있으므로 大韓民國의 삶 자체가 나 개인의 삶과 근본적으로 같은 체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 개인은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상에서의 變化는 지구의 자체 五行運動과 宇宙의 六氣 간에 相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五運과 六氣가 相合하여 만들어 내놓은 것이 바로 三陰三陽이다.

그러므로, 바로 厥陰風木이나, 少陰君火, 太陰濕土, 陽明燥金, 太陽寒水니 하는 것이 바로 위에 말한 五運과 六氣가 부딪혀 이루어내고 있는 陰陽變化를 합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지구상의 기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個體의 變化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알기 쉽게 식물 중의 콩을 예로 든다면, 한 알의 콩 속에는 精氣가 충만 되어 있다. 만약 봄이 되어 外部에 적당한 風氣가 생겼다면 콩속에서 나오는 木氣와 相合하여 厥陰을 보여줄 수 있다. 즉 봄에 콩이 싹이 트는 것이 바로 厥陰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름에 줄기가 자라는 것은 콩 자신의 火氣와 外部의 君火가 합하여 少陰을 만들어 낸 것이며 長夏의 開花는 자신의 土氣와 外部의 濕이 만들어낸 太陰이며 가을의 단풍은 자신의 火와 外部의 相火가 만들어 낸 것이며 잎의 凋落은 자신의 金氣와 外部의 燥氣가 합하여 만든 것이며 結實은 자신의 水氣와 外部의 寒이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風이니, 君火라 하는 것

은 外部에서 들어오는 것이므로 제외하고 木과 厥陰이나 金과 陽明만을 본다면 木은 陽인데 반하여 厥陰은 陰이며, 金은 陰인데 반하여 陽明은 陽이다. 이처럼 같은 個體內에서 陰陽이 상반되는 것은 바로 內的 變化와 外的 現狀이 서로 상반되어 바로 陰陽의 調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內部的 五行變化와 外部的 陰陽現狀은 서로 相反되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로 이렇게 모순되는 자체가 調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內와 外가 모두 陽으로만 치우친다든지 陰으로만 치우치면 그 變化가 한 쪽으로만 지속되어 다시 반복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五運六氣의 陰陽五行도 人體內에서의 陰陽五行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며 五運과 六氣가 相合하여 만들어 내고 있는 陰陽變化는 그 個體 내의 五行 氣運과 협력하여 그 存在를 지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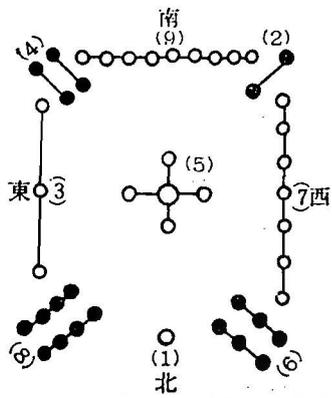
VII. 結論

陰陽과 五行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보았는데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정리해 보면, 첫째 五行과 陰陽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五行은 事物의 體와 空間的 인식에서 쉽게 파악되고 陰陽은 事物의 用處와 時間的 變化에서 쉽게 파악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人體에서 陰陽의 變化는 經絡을 통하여 드러나고 五行運動은 五臟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臟腑와 經絡의 의존적 관계로 보아 陰陽五行의 의존적 관계를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모든 事物에 陰陽運動과 五行運動이 모두 같이 존재하지만 고등생물은 五行運動이 강하고 하등생물일수록 陰陽變化에의 의존이 강하다는 것이다. 넷째로 辨證에 있어서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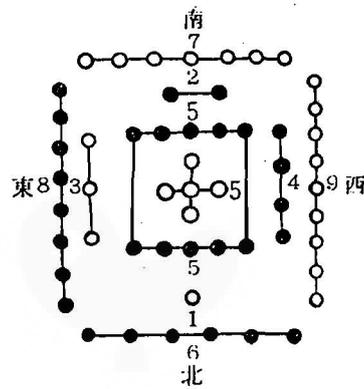
陰陽과 五行의 關係

陰陽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으니 五行도 아니라 모든 事物도 이와 같은 法則으로 똑같이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섯 變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卅로 五運六氣는 氣候에만 적용되는 것이

〈河圖〉



〈洛書〉



註：그림의 數字는 筆者의 註解다.